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오리산업 대처방안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장 수의학박사 김재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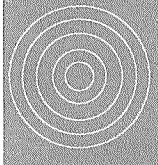
김재홍 박사

1. 머리말

베트남에서는 지난 6월 30일 닭에서 다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국제기구에서는 중국과 동남아국가에 대하여 혹시라도 인체간의 감염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종을 출현시킬 위험성이 높다고 하여 여전히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일명 조류독감)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시점이 3월 20일이었으니 벌써 3개월 보름이나 지났다. 최초 발생시기인 2003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하면 7개월 정도가 흐른 셈이다. 일상적으로는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기간동안 오리 사육업계는 이 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오리사육을 포기할 정도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오리산업의 '붕괴'라는 단어 외에는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국내 오리 사육업계 역사상 이번처럼 언론과 소비자의 관심을 받은 적은 없을 것이다.

사회안전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욕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고, 질병이나 위생과 관련된 식품의 안전성 위해요인이 발생하면 그대로 소비시장의 위축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 강도가 얼마만큼 센지 여실히 경험한 바 있으므로 오리 사육업계는 다른 축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의 종식단계에 와 있다고 하지만 발생국가로부터 언제 다시 유입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재유입 방지를 위해서도 국가적인 방역대책의 수립과 함께 협회를 중심으로 한 오리 사육업체의 자체적인 대처방안 수립과 실천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자칫 이를 소홀히 한다면 이번 인플루엔자와 같은 불행한 사태는 재연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분야별 대처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기로 한다.

2. HPAI 발생상황

가. 국내

1996년 경기도 화성에서 H9N2 혈청형의 가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저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LPAI)가 처음 발생 보고된 이후 LPAI는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양계장의 항체 양성율이 50%에 이르는 곳도 있다. 그러나 H9N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오리에는 잘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 오리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에서도 H9N2의 감

염은 거의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12월에 H5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충북 음성에서 국내 최초로 발생한 이후 '04년 3월 20일 경기도 양주에서의 최종 발생까지 10개 시·군(7개 시·도)에서 총 19건이 발생하였다. 축종별로는 오리에서 9건, 닭에서 10건이 발생되었다. 시·도별 발생상황은 울산 1, 경기 2, 충북 6, 충남 6, 전남 1, 경북 2, 경남 1건 이었다. 오리농장 9건은 전남 나주의 육용오리 1건 발생을 제외하면 모두 종오리(원종오리 1개소 포함)에서 발생하였다 (표 1).

표 1. 지역별 축종별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구분	발생일	농장명	지역	축종	사육규모(수)
1	'03.12.10	PDK	충북 음성	육용종계	24,000
2	'03.12.14	KHM	충북 음성	종오리	3,480
3	'03.12.16	SKH	충북 음성	산란계	15,000
4	'03.12.18	KSJ	충북 음성	종오리	8,000
5	'03.12.18	LJS	충북 음성	정오리,육용오리	7,700
6	'03.12.18	PBJ	충남 천안	원종오리	4,758
7	'03.12.18	MJH	전남 나주	육용오리	14,900
8	'03.12.20	LCH	경북 경주	산란계	10,250
9	'03.12.20	PJY	충남 천안	종오리	8,000
10	'03.12.21	YHY	충북 진천	종오리	5,000
11	'03.12.21	KYT	경북 경주	산란계	144,000
12	'03.12.21	YJK	충남 천안	육계	20,000
13	'03.12.23	KDH	경기 이천	산란계	43,000
14	'03.12.23	LTS	울산 울주	토종닭(오리10)	3,610
15	'04.01.02	PKH	충남 천안	종오리	8,500
16	'04.01.11	LKB	경남 양산	산란계	18,000
17	'04.01.25	SWS	충남 천안	산란계	23,000
18	'04.02.04	YKY/YKU	충남 아산	종오리	14,700
19	'04.03.20	KSB	경기 양주	산란계	22,000



나. 발생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

사실, 충북 음성의 육용종계에서 처음으로 이 병을 확인할 때까지만 하여도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하면 어렵기는 하겠지만 조기에 박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연이어 발생농장 3km 이내에 있는 종오리농장에서 2번째로 발생하였을 때는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증상이 눈에 드러나는 닭에 비하여 오리에서는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만연되어 있는지 도저히 감을 잡기 어려웠고, 전국적으로 검사해 보기 전에는 상황판단을 할 수가 없어 공포심이 들 정도였다.

그 이후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혈청검사에서 인근 원종오리 농장 및 이와 관련된 종오리 농장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됨으로써 육용종계 농장보다 오히려 종오리 농장의 발생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곧 바로 전국적인 종오리 농장 검사에 착수하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방방역기관을 독려하여 전국의 39개 종오리 농장으로부터 분변과 혈청 각 1,053건씩을 채취하여 수의과학검역원으로 보내도록 하여 1차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양성농장 1개소를 확인하여 전격적으로 살처분 매몰하였다. 39개 농장 중 양성농장 1개소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불행 중 다행이었다. 아직은 확산이 매우 제한적인 상태에 있다는 증거로 여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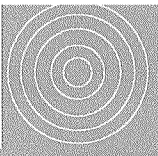
전국적인 확산여부와 2차적인 질병

전과 여부를 더욱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모든 종오리 농장에 대한 전국적인 검사를 2회 더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업무량 과다, 농가의 불안심리 등으로 많은 항의와 호소가 있었다. 2차 검사에서도 1개 종오리 농가가 양성반응을 나타내었으며 3차 검사에서 더 이상 양성농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난관이 많기는 하겠지만 박멸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 발생농장 및 위험지역에 사육된 가금류는 질병 박멸과 확산방지 차원에서 모두 392농가에서 대략 5백 28만수가 살처분 되었으며, 그 중 오리오리의 살처분 수수는 대략 19농가 1,123,000수이었으니 전업농가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오리 사육수수 전체의 약 15% 정도나 되었다.

다. 국외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는 1878년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보고되었으며,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유럽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다. 1955년에 들어와서 원인체가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확인되었고, 1959년에 H5N1형의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분리 보고되면서 과학적으로 확인된 최초의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그 후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미국, 멕시코, 파키스탄, 홍콩, 이탈리아, 칠레, 네델란드, 벨기에 등 세계 각국에서 각기



다른 종류(아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하여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작년 11월까지 총 21건이 발생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만 9건이 발생하여 근래에 들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H5N1에 의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즉시 국제동물보건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이를 보고한 이후, 베트남,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각국과 중국 등 지에서도 연이어 이 병의 발생이 보고되었고, 총 8개 아시아 국가에서 이 병의 발생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이 병의 발생을 보고하기 수개월 전에 이미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질병 발생 공표에 힘입어 이들 국가도 덩달아 이 사실을 밝히게 되었고, 곧 국제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국제수의사무국(OIE) 등 국제기구가 방역에 직접 개입하여 질병의 확산을 차단하게 되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세계적 만연을 미연에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방치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바이러스의 변이를 급격히 제한시키는 데 세계적으로 기여한 셈이 되었다.

이쯤에서 눈치 빠른 분이라면, 우리가 2001년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중국산 국내 수입 오리육으로부터 H5N1형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수입검역 단계에서 분리하여 확인함으

로써 중국산 오리육의 국내 수입을 장기간 금지시킨 바 있고, 그 이후 국내 오리산업이 호황을 누린 적이 있음을 기억하실 것이다. 중국에서는 '97년 홍콩 H5N1(조류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어 6명의 인명을 앗아간 최초의 사례임)과 유사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그 지역내에서 순환 감염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국내 발생보다 이들 국가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먼저 발생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에 접어들어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H5N1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발생하였고, 아직도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오리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수한 관계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모두 135종이 있고 같은 종류끼리도 병원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자연생태계의 야생조류에는 135종의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다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바이러스는 야생조류와 함께 긴 기간을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면서 별 진화가 없는 균형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청둥오리나 가창오리와 같은 물새류에는 다양한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는데 이들 오리와 같은 야생조류는 이 병에 걸려도 거의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자연계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대부분 닭에서도 병원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현재까지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모두 H5 또는 H7 형에 속하는 것이었지만, H5나 H7형의 바이러스도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은 대부분 비병원성 또는 저병원성 바이러스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드물긴 하지만 때로는 야생조류에서 가금류로 종간의 벽을 뛰어넘어 감염이 일어나거나 어떤 야생조류의 바이러스가 오리나 거위 등을 거쳐 닭이나 칠면조의 가금류로 전파되었을 경우에는 바이러스 유전자의 급격한 변이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H5 또는 H7 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일부는 가금류에서 지속적으로 감염되는 과정에서 고병원성의 특성을 획득하여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멕시코가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한 외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평균 10%의 야생조류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중 오리 및 거위류의 물새류는 15%로서 높은 바이러스 감염률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이런 야생오리류와 가금류가 접촉할 기회를 갖는다면 야생조류에 분포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육오리에 감염되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야생조류에서 닭이나 칠면조로 직접 전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집

오리나 거위, 사육 메추리 등에 감염되어 일 단계 변이가 일어난 후에 닭으로 감염된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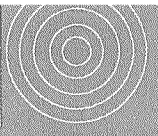
4. 국내 유입 및 전파경로

어떤 경로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추정하듯이 우리나라도 국가간을 이동하는 철새에 의하여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호수, 강, 저수지, 냇물 등이 인접해 있는 오리 사육농가는 방역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불법 휴대 축산물의 국내 반입이나 해외여행객에 의하여 바이러스가 오염된 물품이 국내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수년간 중국이나 동남아국가로부터 노동인력의 유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축산농가 등 현장으로 바로 투입되는 경우, 상당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리농장 간에 일어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염경로를 보면 대부분 분변 차량,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 오리 병아리의 분양 등 감염동물의 거래 등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오리의 분변 1g에는 약 1억 10억



개 정도로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섞여 있고 이것은 십만 내지 백만수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고농도의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 마리의 오리라도 감염이 되면 짧은 기간내에 모든 농장으로 퍼지게 된다.

5. 오리 감염 시 나타나는 증상

육용오리에서는 사료섭취량은 다소 감소할 수도 있지만 특징적인 증상이 전혀 없으므로 감염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산란중인 종오리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사료섭취량이 급격히 줄면서 다른 증상은 없이 산란저하만 일주일 정도 계속되다가 그 이후 서서히 회복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 1).

사료섭취량 감소는 12월 12일부터 감지되었고 12월 14일이 지나면서 산란률도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바로 살처분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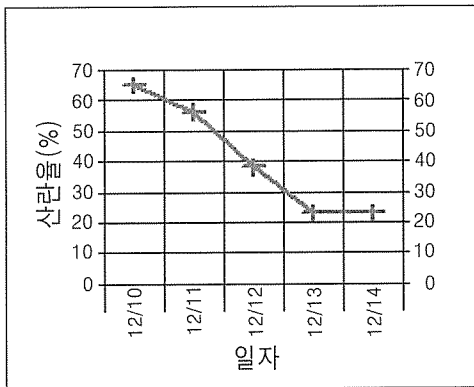


그림 1. 종오리 농장의 산란저하 양상

6. 예방과 방역을 위한 분야별 대처방안

가. 정부차원의 방역정책 및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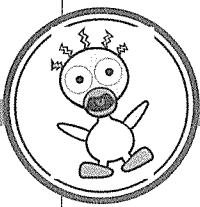
1) 방역 법규 및 제도의 재정비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의 재유입에 대비하여 초동방역 단계의 혼란을 감소시키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금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을 이미 개정하여 고시한 바 있고, 방역조직의 강화와 함께 방역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역행동지침(SOP)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법과 제도면에서는 보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수입 가금육에 대한 검역의 강화

필자의 견해로는, 최근에 H5N1에 의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적이 있는 동남아 국가에서 사육오리나 거위, 야생조류를 대상으로 감염여부를 광범위하게 조사해 본다면 많은 양성반응이나 감염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최근 베트남에서도 이 병의 최종 발생이 공식적으로는 2004년 5월 6일이었으나 그 이후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감염실태 조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는 많은 가금류가 발견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던져 주었고, 결국 6월 30일에 메콩강 지역의 양계농장에서 또 다시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방목형태의 오리나 거위 사육이 매우 흔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남, 태국 등에서는 질병 예찰 및 감염실태 조사의 범위와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양성사례가 발견될 개연성이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는 닭에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리나 거위 류 뿐만 아니라 닭에도 감염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 발생국 또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국가로부터의 가금류 또는 가금육의 수입은 금지되거나 철저히 검사한 후에 수입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국내 입국시 검역을 거치지 않는 채 불법적으로 가금산물을 휴대하여 들어오는 여행객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하여 위험물질을 반입하는 사례는 철저히 색출해 내어야 할 것이다.

3) 전국적 감염실태 조사 및 질병 발생 예찰

야생 철새류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하여 계절별로 이들을 주기적으로 포획하여 바이러스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분변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광범위한 국가적 예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육용오리 도축장 및 종오리 농장에 대하여도 정기적인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등 질병 발생 모니터링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각종 항원 및 항혈청 생산량을 확대하여 지방방역기관에 공급할 예정이며, 광범위한 질병 예찰을 실

시할 계획이다.

4) 야의 신속진단 및 방역기술 연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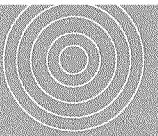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에서는 야외 현장에서 10~20분만에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신속 간이진단 키트를 산업체 공동연구로 개발한 바 있고, 여기에 H5 형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H9 형의 저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감별할 수 있는 기술을 접목하여 진일보한 야외 간이진단 키트를 개발 중에 있다.

수의과학검역원의 실험실 진단기술은 이미 국제사회에도 정평이 있을 정도로 확립되어 있으며 이번 발생시에 초동방역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하여 국내 분리주를 이용한 백신 생산기술도 거의 개발 완료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후속 연구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교육 및 홍보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활동 중에서 교육 및 홍보활동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방역의 전체적인 틀은 국가에서 운영하지만 세부적인 방역실천은 업계와 농가의 몫이기 때문에 업계나 농가의 협조 없이는 국가방역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나. 농가에서 해야 할 일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실질적인 방역활동의 주체는 사육농가이다. 오리사육은 이익을 추구하는 농가의 개별적인 경제적 활동의 일환이다. 따라서, 농가에서 차단방역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보상해 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시 조기 신고 농가에 한하여 100% 보상을 해주었지만, 이웃 일본만 하여도 농가의 방역조치사항을 평가한 후 등급에 따라 최고 80%만 보상해 준다고 한다. 일단 질병이 발생하면 방역을 소홀히 한 농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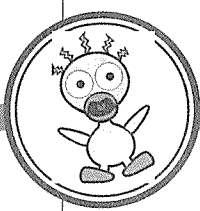
차단방역은 병원체를 묻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과 물건, 차량, 야생조수 등이 자기 농장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하는 방역조치를 총칭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장내로 들어오는 각종 차량이나 사람은 철저히 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소독 후에 출입시키며, 야생조류의 축사내 접근을 차단하는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절대적이다.

혹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에는 가금 사육농가나 생닭을 비롯한 조류의 매매시장 방문은 절대적으로 피하고, 그 나라의 가금 사육농가 또는 관련 산업과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귀국 후에 반드시 목욕을 한 후 옷과 신발을 새것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축사에 바로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행지에서 사용하던 모든 물

건과 옷은 소독하고 세탁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차단방역요령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종오리에서 사료섭취량 감소 및 급격한 산란저하가 발생할 때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여 신속한 진단을 받도록 한다.
- 호수, 강, 저수지 등 철새 도래지 인근에서는 가능하면 오리나 닭을 사육하지 않도록 하고, 야생조류가 축사 내 또는 농장내로 접근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사료창고를 만들고 필요시 덮개를 덮거나 그물을 쳐 두도록 한다.
- 농장이나 축사 출입 시 분변 처리 및 운반차량, 오리 출하 및 입식 차량, 기타 사료 및 동물약품 등 관계자의 차량 등과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농장 출입 허용시에는 철저히 소독한다. 가능하면 축사내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난좌는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일회용을 사용하며, 그 외 사양기구 등도 소독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축주 자신이나 가족들도 외출 후 농장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소독하도록 하고, 다른 오리농장 또는 양계농장의 방문을 삼가도록 한다.
- 주기적으로 축사 내 외부를 청소하고 소독한다.
- 가금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의 이동은 절대 삼가하여야 한다.



- 죽은 오리는 방치하지 말고 땅에 묻거나 야조나 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밀폐용기에 담아둔다.
- 농장의 구충·구서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최대한 동시입식, 동시출하(올인올아웃) 형태의 입식관리를 한다.

다. 협회 및 관련단체에서 해야 할 일

오리협회를 중심으로 회원농가를 확대하고 오리 사육농가의 결속을 강화하여 질병 발생 정보 등을 신속히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종오리 농장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거나 이상 징후가 있다는 풍문이 있을 시에는 오리산업 전체를 살리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시 진단이나 검사를 협회차원에서 직접 의뢰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리 사육농가의 방역 의식 고취와 방역기술 향상을 위하여 위생방역 교육과 홍보계획 등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진단·방역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공고히 유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수집하여 회원농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한편, 이제는 종오리도 종축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아야 하며, 종오리 사육을 보다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여 육용오리의 사육농가와 차별화함으로써 위생과 방역면에서 진일보한 체계를 갖추면서 장기적으로 오리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시 관계 당국과 긴밀히 교감을 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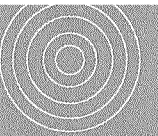
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7. 맺는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는 오리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없는 질병이다. 오히려 닭에 발생하였을 때 양계산업을 괴멸시킬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질병이다. 그러나 그런 사실 자체가 오리에서 이 질병을 널리 확산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악의 경우, 지난 번 국내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을 때 경험하였듯이 오리 사육업계가 역풍에 휘말려 좌초될 우려도 매우 크다.

왜냐하면, 오리에서 직접적 감염 피해는 경미할 지라도 바이러스의 변이를 유발하거나 질병의 확산을 조장할 가능성, 인체 감염 문제와의 연관성 등은 닭보다 오리에서 훨씬 높기 때문이다. 또한 닭은 감염시 무서울 정도의 폐사율과 특이적인 증상으로 인하여 유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비하여 오리는 감염되어도 모르는 채 유통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그만큼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우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번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시에 오리 사육업계 전체는 질병 발생과 인체 감염 우려라는 폭풍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정작 발생농장에서 신고로 인하여 남들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소비 격감과



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손해가 미연에 해소된 측면이 강하다.

앞에서 언급한 산란저하와 같은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신고를 꺼릴 이유가 없다.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할 것을 다

시 한 번 부탁드린다. 이를 은폐한 채 혼자만 살려고 하다가는 오리 사육업계 전체가 망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다. 서로가 함께 간다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오리마을 11/12

